

300-103. 신문조서(具然欽 외 2명 표 치안유지법 위반)

- 경성지방법원이 刑事第1審 訴訟記錄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1930년 10월 29일 具然欽·河宗煥·金明會에 대한 예심청구서로 부터 1931년 12월 16일 공판조서에 이르기까지의 관련기록 수록
- 예심청구서의 범죄사실을 보면, 具然欽은 당시 철원군수인 아버지 具鳳植으로 부터 한학을 공부하고 宮內部 侍從院 右侍郎, 內部 地方制度 調査委員, 內部主事를 역임하였으나, 한일합방 직전에 분결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향리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다 1919년 겨울에 중국 봉천에 가서 滿洲日報 기자로 입사하여 본사 및 경성지사에 근무한 바 있다.
- 1924년에 東亞日報에 입사하여 지방부장이 되고, 다음해에 時代日報에 옮겨 영업국장, 논설부장 등을 거쳤으며, 1923년 7월 7일 경성에서 洪命憙·洪增植·金在鳳·洪悳裕·李 載誠·朴一秉·尹德杓·元友觀·金燦·李鼎馥·洪性憙 등과 같이 마르크스주의 연구를 목적으로 新思想硏究會를 창립하고, 1924년 11월 19일 간부회의 결의에 따라 공산주의 사상의 보급·선전에 노력하였다.
- 그 후 신사상연구회의 명칭을 火曜會로 개칭, 회원이 50여 명에 달하였으며, 1926년 4월 4일 北風會 朝鮮勞動黨 및 무산자동맹과 합동으로 正友會를 만들어 동 회원으로 사상운동에 종사하였다.
- 1925년 8월경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인 金在鳳의 권유에 의하여, 동 당이 조선을 일본제 국주의 기반으로부터 독립케 하며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것인 줄 알고 가입하였으나, 동년 11월 하순 이후 공산당원의 검거선풍이 불자 1925년 2월 하순 姜達永·李準泰·金錣洙·李鳳洙·洪南杓 등과 같이 당의 재건을 도모하여 중앙간부가 되었다. 또한 柳淵和·洪南杓·具昌會·朴純秉·李敏行과 같이 時代日本 細胞를 조직, 그 책임자가 되고, 동년 6월 10일 純宗 국장일에 공산당 중앙집위원 權五卨을 책임자로 하여 시위운동을 기도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중국 상해로 도망하였다.
- 河宗煥은 上海 共同租界 安南路 泰威坊에서 尹哲의 권유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 上海韓人靑年同盟에 가입하여 8월 29일 한일합방일에 上海 南京路 永安公司 부근에서 시위운동을 하고 '爲韓國亡國紀念告中國革命民衆書' 및 '被壓迫民族聯合起來'라고 한 격 문 약 300장을 살포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 金明會는 1929년 4월 上海 佛租界 馬良路 經益里에서 金元植의 권유로 上海韓人靑年同盟에 가입,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 '援助韓國革命'이라 大書한 赤旗를 흔들어 시위운 동을 하고 목적관철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 이상의 범죄사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건들이 있다.
 - 1930년 10월 20일, 具然欽 세포관계의 건 보고서
 - 1930년 11월 7일, 具然欽·河宗煥의 호적 조회
 - 1930년 11월 7일, 具然欽·河宗煥·金明會 3명의 피고인 신문조서
 - 1930년 11월 19일, 具然欽의 제2회 피고인 신문조서
 - 1932년 1월 15일, 3명의 구류갱신 결정서
 - 1931년 3월 2일, 具然欽·金明會 2명의 호적조회
 - 1931년 3월 9일, 河宗煥의 호적조회
 - 1931년 3월 19일, 具然欽의 제3회 피고인 신문조서
 - 1931년 3월 23일, 具然欽의 제4회 피고인 신문조서

1931년 3월 25일. 具然欽의 제5회 피고인 신문조서 1931년 3월 28일, 具然欽의 제6회 피고인 신문조서 1931년 3월 31일, 河宗煥의 제2회 피고인 신문조서 1931년 4월 12일, 具然欽의 변호사 金用茂 선임계 1931년 4월 16일, 3명의 구류갱신 결정서 1931년 4월 15일, 金明會의 제2회 피고인 신문조서 1931년 4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金在鳳 증인 신문조서 1931년 4월 24일, 대전형무소에서 呂運亨 증인 신문조서 1931년 5월 7일, 3명의 변호사 李仁의 선임 계 1931년 7월 15일, 3명의 구류갱신 결정서 1931년 10월 15일, 3명의 구류갱신 결정서 1931년 11월 1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鄭志鉉의 증인 신문조서 1931년 11월 16일, 具然欽의 제8회 피고인 신문조서 1931년 11월 16일, 金明會의 제3회 피고인 신문조서 1931년 11월 16일, 河宗煥의 제3회 피고인 신문조서 1931년 11월 17일, 예심종결 결정을 위한 3명의 검사 의견서 1931년 10월 2일, 具然欽의 보석원, 의견서, 결정서 1931년 11월 18일, 3명의 예심종결 결정서 공판회부 1931년 11월 20일, 3명의 소송기록 송부서 1931년 11월 20일, 3명의 소송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 1931년 12월 9일, 3명의 공판기일 송달서 1931년 12월 9일, 3명의 공판조서 1931년 12월 16일, 제2회 공판조서 1931년 12월 16일, 具然欽 징역 6년 상소권포기 신청서 1931년 12월 16일, 金明會 징역 2년 상소권포기 신청서

1931년 12월 16일, 河宗焕 징역 2년 상소권포기 신청서